월요광장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

이승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봄은 생명의 계절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생명이 피어난다. 봄이 오면 새는 알을 낳아 새끼를 깐다. 닭도 이즈음에 달걀을 품어 병아리를 깐다.

나무에서는 물이 올라 새싹을 펴고 꽃을 피운다. 꽃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며 꿀을 따는 대신 암술과 수술에서 꽃가루를 묻혀 수분을 돕는다. 수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씨앗이 되어 꽃밭에 꽃이 다시 무성해진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도 이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남녀의 결합, 즉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중 누구도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남자 혼자만으로, 여자 혼자만으로는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

결혼이란 혼자서는 불완전한 반쪽과 또 다른 반쪽이 만나 온전한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이처럼 성은 좁게 보면 남녀 간의 육체 관계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만, 의미를 확대하면 매우 높은 뜻을 담고 있다.

성(性)은 혼돈과 심연 속에 만물의 근원으로서 성과 성이 교류하며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성과 관련된 표현은 인간에게 동물적인 생존 본능의 수성(獸性)과 만물의 영장이 갖는 인성(人性), 그리고 우주의 창조적 본성인 신성(神性)이 공존한다. 이러한 성을 가볍게 볼 게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성을 남용하고 있다. 매일 낙태로 죽는 태아가 전 세계에서 12만5000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그 중 강간이나 유전병에 의한 낙태 요인은 1%에 불과하다고 한다. 낙태가 불법인 한국만 해도 해마다 17만 명의 태아가 죽어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 중 최저출산율을 기록하는 한국이 낙태율마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모두가 교육의 문제,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 부족에서 나오는 인성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성 관련 정보를 거의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거르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통해 성에 집착하고 오용하는 그릇된 의식이 팽배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제는 올바른 성문화 의식을 갖기 위해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야 할 때이다.

성교육은 성에 대한 지식전달의 차원을 넘어서 성 의식의 진화가 인간 의식의 진화와 연결된다는 것을 바탕에 두고 시행해야 한다. 성이란 불결한 것이 아닌, 신성한 것임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감정에 따라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성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생명을 잉태하는 아주 고귀한 행위라는 점을 먼저 인식한다면 비로소 성과 사랑에 대한 선택과 행동도 진정한 가치와 욕구를 반영하는 의식 있고 책임감 있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성은 고귀한 성이다. 성욕을 감각만이 아닌 영적인 경험으로 승화한다면 성에너지를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인간에게 수성(獸性)의 성(性)뿐만 아니라, 신성(神性)의 성(性)이 존재한다는 인식과 감각 회복을 위한 성교육이 그 시작이다. 성은 바로 생명의 시작이며, 존재의 근원인 성에 대한 태도와 경험이 바로 행복한 삶을 위한 인성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성은 하나의 선택이다. 당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당신의 선택에 따라 성은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방종이 될 수도 있다.

성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할 때 아름답다. 그렇지 않으면 성은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 있다. 성은 참으로 성(聖)스럽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S.L.O.W. 판사

정세진
광주지방법원 판사

지난달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어서 울음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둘째는 물론이고 요즘 부쩍 우는 일이 잦아진 첫째까지….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소리 높여 우는 아이들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어느 책에서 서양의 육아법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 'S.L.O.W. 육아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S(Stop) 아기가 울 때는 무조건 울음을 멈추게 하기 전에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의 의사전달을 이해한다.

L(Listen) 아기의 울음을 잘 듣는다. 아기가 우는 시간이 언제인지, 울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핀다.

O(Observe) 아기가 울 때 울음소리 외에도 몸짓, 표정 등을 동시에 관찰한다.

W(What's up) 아기의 울음을 듣고 관찰한 내용을 종합해 아기의 의사를 추론한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는 순간 '아차'싶었습니다. 아이가 울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아이가 어떠한 몸짓과 표정으로 울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아이가 우는 불편하고 심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행동하기 바빴던 제 평소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육아뿐만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법원에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법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리 찾아갈 곳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이들입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같을 수 없기에 그로부터 비롯된 문제의 구체적인 모습들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법원에 나와서 하려는 이야기도 당연히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간절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들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고민을 다하지 않고, 단지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세세한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 저는 'S.L.O.W. JUDGE(판사)'가 되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쟁점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당사자들을 바라보려 합니다. 일단 귀 기울여 그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듣고자 합니다.

그들이 법원에까지 나와 이야기를 하게 된 전후 사정은 어떠한지도 살펴보려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 비로소 법률 지식을 적용하여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물론 같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이전에 비해서 늘어날 것이고, 제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과 능력 안에서는 당사자들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들을 수도, 그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정답을 궁리하는 것은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닐 것이기에, 이러한 S.L.O.W.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당사자들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길을 가다 넘어져 아파하는 이에게 배고픔을 달래라고 빵을 주거나, 무더위에 땀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이에게 추위를 이겨내라고 외투를 입히는 우는 더 이상 범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신의 가슴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어떤 이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할 기회 자체를 앗아가는 안타까운 일은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기고

空約 아닌 公約을 가리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최관수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과장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 개성 있는 얼굴만큼 각양각색인 마음은 순간순간 수 만 가지 생각으로 흔들리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이미 '어린 왕자'가 말한 바 있다. 정말 많고 많은 일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고민을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란 고민을 수도 없이 반복한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이는 돈을 쓰고 어떤 이는 거짓말도 두려워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곧 득표로 이어지는 정치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정치가들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 특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입후보자들이 고민하겠지만 특별한 방법이 아닌 보통의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누구나 알고 있고 쉬워 보이지만 실천은 어렵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선뜻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굉장히 솔직해지면 되는 것이다. 솔직함이라는 무기는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공약의 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말한다.

유권자의 눈높이가 향상돼 과거처럼 금품이나 연고주의에 의한 선거보다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막연한 공약들은 상당수 사라지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유권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태어난 게 바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다. 매니페스토란 라틴어로 '선언'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후보자의 선심성 정책이나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미연에 방지하고,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후보 때의 공약들을 잘 실현시키고 있는지 검증하는 목적을 가지는 운동을 말한다.

현행선거법에서는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에게 그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예비후보자홍보물)의 2분의1 이상의 면수에 선거 공약 및 이에 대한 이행절차·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공약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구체적인 공약이 기재된 선거 공약서를 제작하여 유권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선자의 선거공약서는 그의 임기만료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가 언제든지 당선자의 공약이행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공약은행을 통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3년 11월부터 전라남도선관위와 전남 매니페스토 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어젠다 공모, 델파이조사, 토론회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발한 전남지역의 10대 정책 어젠다를 발표하고 이를 정당과 예비후보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정책 및 공약에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전남도내 22개 시·군 전역에 설치된 행복투표함을 통해 유권자들은 정책과 희망 메세지를 제안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공약제시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의 수립이나 예산의 집행이 시·도나 구 시·군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선거에 비하여 맞춤형 매니페스토 공약을 좀 더 빨리 실천하고 효과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된다면 정책 경쟁에 의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비방·흑색선전 같은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극복되어 정치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건전한 토양이 마련된다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정책선거와 책임정치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나름대로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있지만 유권자들은 지키지도 못할 공약과 말도 안되는 정책에 혹하지 말고 실천가능한 공약이 무엇인지 꼼꼼히 비교 해보고 제대로 된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이것이 바로 유권자의 매니페스토가 아닐까 싶다.

각종 폐해 양산하는 대포차량 근절 동참하자

대포물건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대포폰)와 통장(대포통장). 차량 등을 훔치거나 대여·양수(대포차)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특히 각종 범죄수단에 이용될 소지가 높은 대포차가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의 차량이 불법명의 자동차인 대포차로,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경찰과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운행한 사람의 경우 관련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유령차량'으로 불린다. 때문에 교통사고 및 절도 등 다양한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데다 사고발생 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대포차는 보험료는 물론 세금도 내지 않고 음성적으로 거래됨으로써 범법자들이 주로 찾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대포차는 전국 차량의 5%가 넘는 100만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이 대포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부과되는 500만원의 벌금은 대포차를 팔아 챙기는 수익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어서 처벌 수위의 강화 또한 필요하다. 대포차는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이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해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대포차다. 대포차는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지자체, 검경이 대대적으로 나서 대포차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양림로(학동)

社說

국회의원들 특정후보 지지 적절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운태 현 시장과 이용섭 국회의원, 윤 후보 등 3자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7명 중 5명이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파문을 낳고 있는 것이다.

김동철, 강기정, 장병완, 박혜자, 임내현 의원은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장현 후보는 명망이나 경력은 화려하지 않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며 "새 정치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윤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은 "새 정치 정신에 정면 역행하는 것이자 시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나눠먹기식의 구시대 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측도 "일부 국회의원들의 윤 후보 지지는 지도부의 뜻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국회의원 5명의 주장대로 윤 후보는 민주주의 성지인 광주에서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 한 '민주인사'임에 틀림이 없다. 그는 또 평생을 광주를 위해 헌신해 온 시민운동가로서 새 정치의 완성을 위해선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도 일리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특정 후보 지지는 당원과 시민들의 참정권 배제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며 대다수 유권자가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또한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비칠 경우 새 정치와 거리가 먼 구태정치나 다를 바 없다.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공천 '회귀'로 혼란을 초래한 마당에 국회의원들마저 시장 경선을 놓고 파문을 일으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 스스로 의정활동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임을 위한…' 5·18기념곡 지정 미루지 말라

5·18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일을 한 달여 앞둔 광주가 들끓고 있다. 광주정신이 오롯이 담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어서다.

국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국론 분열을 들먹이며 애써 묵살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에 대해 "워낙 강한 반대 여론도 있어서 잘못하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6월27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재석 의원 200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13명, 기권 29명이었다. 결의안은 국가보훈처가 30여 년간 5·18 기념식에서 계속돼 왔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공식 식순에서 배제하고 대체 추모곡 제정을 추진하자 이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이후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한 뜻으로 기념곡 지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여론 수렴을 빌미로 10개월 가까이 미뤄오다 급기야 황당한 핑계를 들이댄 것이다.

정 총리 발언에 대해 5월 단체들은 "도대체 누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지 되돌아보라."고 비판했다. 기념곡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 5·18행사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오월의 유산에 자긍심을 갖고 이를 선양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마땅한 임무다. 정부는 '역사 지우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 소모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기념곡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해조류

해조류는 바다에서 자라는 수중 식물류를 총칭한다. 색깔을 기준으로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로 구분하고 국내에는 500여종이 자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김, 미역, 다시마, 톳, 꼬시래기, 파래, 매생이 등 50여종에 달한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해조류는 단연 김이다. 해태(海苔)·감태(甘苔)·청태(靑苔) 등 이름도 다양한데 예부터 밥도둑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정월 대보름날에는 굽지 않은 김에 밥을 큼지막하게 싸서 먹는 복쌈이란 풍습이 있었다. 복쌈은 눈이 밝아지고 수명을 길게 한다해서 명쌈이라고도 불렀다.

신라시대부터 먹기 시작했다는 김은 조선시대 완도에서 양식기술이 발달하면서 전 국민의 음식이 됐다. 수산학자 정문기 선생은 '조선의 수산'이란 책에서 완도에서 방렴(防廉)이란 어구에 김이 착생한 것을 발견하고는 편발을 만들어 양식했다고 기록했다.

현재 완도에는 김을 포함해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장이 2만3000ha로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한다. 9039 어가에서 연간 37만4000t을 생산해 15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국내 해조류 생산량의 45%가 완도산이다.

한해 국민 1명이 소비하는 해조류의 양은 5kg이다. 해조류의 다양한 영양소가 알려지면서 소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시마의 비타민C 함유량은 레몬의 1.3배다. 애주가들에게 인기있는 매생이에는 콩나물보다 3배나 많은 아스파라긴산이 함유돼 있다. 김의 비타민A 함량은 시금치의 8배나 된다.

완도에서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주제로 한 국제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개막 3일이 지났는데 하루 평균 관람객이 2만 명을 넘을 정도로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조국수, 해초비빔밥 등 다양한 음식과 볼거리가 관람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전수받은 녹지않은 해조류 아이스크림이 최고 인기라고 한다.

완도군은 해조류박람회를 계기로 연간 9000억 원대인 국내 해조류 시장 규모가 1조 원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개 나라에 수출도 성사됐다니 박람회가 해조류를 '블랙페이퍼'라 부르며 바다의 잡초로 인식하고 있는 서양인들의 의식 전환을 이끌어 낼지 관심이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